

생명촛불 파빌리온에 3천여개 밝혀

세계평화축전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42일간 대장정 개막



지난 1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개최된 세계평화축전에 참석한 손학규 경기도지사와 구스마오 동티모르대통령이 대화의 성공을 기원했다.

지난 1일 저녁 8시에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5천여 명의 관객이 운집한 가운데 세계평화축전의 42일간의 대장정의 화려한 막이 올랐다.

광복 60주년과 2005 경기방문의 해를 맞아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문화재단이 주관한 이번 축전은 영국, 루마니아, 이스라엘 등 세계 17개국 17개 문화예술 및 학술단체에서 110명이 참석하고, 임진각 일대에 1천여 명이 넘는 문화예술인들이 모여 다양한 공연, 전시, 학술, 체험 행사를 펼친다.

이날 저녁 사전공연에 이어 8시부터 거행된 생명촛불 파빌리온 제막식과 점등식에는 손학규 세계평화축전 대회장, 구스마오 동티모르대통령과 현승중 한국 유니세프 이사장이 참석하여 50m에 이르는 생명촛불 파빌리온에 3천개의 촛불을 밝혔다.

이날 제막식에 참석한 손학규 세계평화축전 대장은 "오늘부터

열리는 세계평화축전으로 분단과 대결의 상징이었던 임진각과 DMZ는 명실상부한 평화와 생명의 성지로 변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생명촛불 파빌리온"은 우리 모두의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기부프로그램으로, 그 수익금은 유니세프(UNICEF)를 통해 "우리 모두의 아이들"을 위해 쓰여진다.

그리고 도라산 강연회 시리즈 2번째로 오후 4시부터 90분 간 도라산역에서 사나 구스마오 동티모르 대통령이 "역사를 넘어 : 화해와 인권을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구스마오 대통령은 "광복 60주년 맞아 펼쳐는 이번 행사는 의의가 크며 특히 동티모르 역사와 한반도의 상황이 비슷하여 유대감을 느낀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핵

문제 해결이 선결과제이며 이번 축전을 통해 한반도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와 전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동티모르 사진전, 대학생 평화대장정 발대식이 있었고, 저녁에는 점등식 후 경기도와 유니세프의 협약식 체결, 구스마오 동티모르 대통령의 평화의 메시지, 안숙선 명창, 그리고 축제연주단과 육태인의 수백치기 점통 예법 등 다채로운 공연과 화려한 불거리가 펼쳐졌다.

한편, 이번 행사는 전시와 학술·교육행사, 문화·예술행사, 참여·체험행사 등이 진행되며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문화재단이 주관하고 파주시, 통일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여성부, KBS, 한국관광공사, 유니세프 코리아, 아리랑 TV가 후원하며 대한항공이 협찬해 마련했다.

지하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포토뉴스

금강산 대학생 평화대장정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지난 4일 2005 세계 평화축전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학생 평화대장정에 총단장으로 참가, 500여명의 대원들을 이끌고 도보 행진을 갖는 등 평화통일의 의미를 되새겼다. 사진은 삼일포 앞에서 손학규 지사가 평화대장정 학생들과 함께 하고 있다.

2005 인구 주택 총조사 현판식



정창섭 경기도 행정 1부지사와 경기지방통계청장은 지난 4일 경기도청 통계담당 사무실에서 "2005 인구 주택 총조사 현판식"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8월 월례회의



김문원 의정부시장은 지난 2일 시청 대강당에서 개최한 월례조회에 참석, 제11회 시장기 및 협회장기 탁구대회에 참가하여 단체전에서 우승한 우리시 직원들에게 우승기와 트로피를 전달하고 격려했다.

꿈나무와 함께 여름방학 체험학습

호원 1동 청소년지도위원회 청와대, 국립서울과학관 견학

의정부시 호원1동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지난 2일 저소득층 가정 아동 22명과 함께 청와대 및 국립서울과학관으로 1일 견학을 다녀왔다.

지난 3월, 평소 체험학습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소년소녀가장 및 저소득층 초등학생 자녀들을 대상으로 '대장금 테마파크' 현장학습을 다녀온 후 "다음에 언제 또 가냐고?" 너무 신나하며 재미있어하는 아이들을 위하여 이번 여름방학을 이용해 체험학습 행사를 특별히 마련했다.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이번 체

험학습을 위해 미리 견학일정을 사전 예약하고, 위원들이 손수 도시락과 간식을 만들어 알찬 행사가 되도록 정성 들여 준비를 했다.

또한 김형도 청소년지도위원장은 이번 체험학습을 통하여 미래 우리사회의 주역이 될 꿈나무인 청소년들에게 뜻 깊은 시간과 잊지 못할 추억이 되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불거리와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여 청소년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하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의정부시 호원1동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지난 2일 저소득층 가정 아동 22명과 함께 청와대 및 국립서울과학관으로 1일 견학을 다녀왔다.

현충탑 참배로 8월 시작

의정부보훈지청장 현충탑 찾아 애국정신 기려

오기택 의정부보훈지청장은 지난 1일 의정부시 자일동에 위치한 현충탑을 찾아 호국영령의 넋을 위로했다.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11시부터 실시된 이날 참배에는 의정부시 보훈단체장 및 임원들이 함께 참석하여 조국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렸다.

의정부시 현충탑은 한국전쟁에

참전해 자유수호를 위해 장렬히 전사한 의정부 출신 대령 홍병태 외 181위의 영령을 추모하고자 1975년 5월 건립되었고, 2003년 1월 현충시설물로 지정됐다.

현충탑에서는 매월 초 의정부보훈지청 과장과 보훈단체장들이 참배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현충일 행사와 백일장 대회 등 각종 추념 행사가 열리고 있다.

지하배 기자 94spice@hanmail.net

가족이 함께 하는 주말문화소풍

매주 토요일 저녁 다양한 문화행사 마련

의정부문화원은 한여름의 짙은더위로 심신이 피로한 시민들에게 시원한 청량제가 되어주는 '토요문화가 산책'을 매주 주말저녁 제공하고 있다.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는 토요문화가 산책은 다음달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의정부문화원의 공연장에서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한다.

8월을 맞이하여 여름더위를 날려줄 시원한 '타악열전', 타악그룹 '광명'을 비롯해, 청소년의 끼와 재능을 볼 수 있는 의정부시 청소년들의 '끼자랑 한마당', 또한 아름다운 여성들이 들려주는 일렉트릭 현악기의 시원한 환타지 퍼포먼스를 들려주며 '패밀리 오브 드래곤'의 열정적인 댄스 무대도 선보이게 된다.

시는 우리고장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문화복지지를 통한 의정부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열린문화 공간으로 한여름에 만나는 '주말문화소풍'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지하배 기자 94spice@hanmail.net

귀하신 분들께 특별한 선물을...

차별화된 식품을 선도하는 기업 "영동식품"



代表 文宰吉

"20년간 오로지 믿을 수 있는 좋은 제품만을 제조·판매하여 소비자에게 보답하겠다는 신념은 변함없습니다"



생산품목

- 영동국수·소면
- 영동메밀·갈국수
- 곰표국수·소면
- 곰표갈국수
- 정훈우동·스파게티
- 차별화된 솔잎·췌·췌국수

■본사 : 포천시 군내면 직두리 359-2 ■전화 : 031-535-5773 ■팩스 : 031-534-13